

절대평가 도입 · 교양 개선할 것

학사제도 공개토론회 열려 ... “지속적인 보완 필요”

학사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달 28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일부 단과대의 학과제 전환과 맞물려 △학부제 문제점 △상대평가제 등 학사제도에 대해 학교와 학생이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과 학생참여 부족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날 토론회는 학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과 학생대표 각각 4명이 패널로 참석해 학부제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학부제=학과제 전환 과정에 대한 학교측의 첫 공식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진행됐다.

김무봉(국어국문학) 교무처장은

토론회 앞서 “2004년도 모집안 제출시점이 촉박해 학과제 논의가 미흡했지만 대부분의 단과대가 학과제를 요구해 ‘성급한 결단’을 내렸다”며 “후속개편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해 학과제 도입을 하지 않는 단과대 중 학과제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2005학년도부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생측은 학부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학과제 전환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제도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종연(사회4)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학과제로 변경하면서 학생들과의 논의과정도 생략됐다”며 “학교측에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3월 각 단과대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의견을 수렴한 단과대도 있었다”고 말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절대평가제=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가 △전공수업 기피 △수강인원이 적거나 창작 등의 수업일 경우 학점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담당교수 불신과 강의 회피현상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중어중문과 학생회장은 “절대평가가 전공을 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평가가 도입이 ‘실보다

득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학교측은 학점인플레이 현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기업체에서 인식하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한림 학생과 계장은 “어떤 평가제도가 어떠한가를 논하기보다 학생들이 단점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사지원실은 2학년 이상 전공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을 요구했으나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면으로 이어짐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edu

2003년 5월 대학생 축전'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 준비단계부터 “대중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학생운동단체간 단결과 연대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대학생 축전은 출범식에 집중되어 있던 예년에 비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첫날에는 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로 ‘한총련 출범 10주년 기념대회 및 11기 한총련 출범 축하 한마당’과 ‘청년학생통일한마당’이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치러졌다.

둘째 날에는 △1회 한국대학생 학술제전=철학, 정치경제, 역사, 여성, 문화, 언론 등을 주제로 한 강연 △1회 한국대학생 문화제전=풍물한마당, 춤한마당, 노래한마당, 락 페스티벌 △5월 한국대학생 영화제 △한국대학생교류한마당=3대 3농구대회, 통일10종경기, 6.15마라톤 △네티즌인터넷동호회 한마당 △2003 반전평화 festival=300만 대학생 반전불이 촛불대행진, 반전평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또한 오후 11시 경에는 11기 한총련 출범행사가 열려 한총련 의장 취임식을 비롯한 11기 한총련 출범 선언 마당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재욱 의장은 “국민들과 학생 모두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합법 한총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다 밝혔다.

이번 5월 축전에서 주목받은 행사는 1회 한국대학생 미디어영상 페스티벌 행사로 △디카 사진 공모전 △6.13 1주기 추모대회 플래시 공모전 △삼미선·신효순 문학상 △COREA 로고 공모전을 축전 기간 전부터 실시, 온라인 공간에서도 대중 참여의 장을 열었다.

한편, 축전 둘째 날 오전 11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상설적 공동투쟁체 ‘전국학생투쟁연대(준)’는 “반미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대중운동 계획을 협의,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앞으로의 연대투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대학부 dmz@donggu.edu

젊음의 열기로 진행된 5월 축전

11기 한총련 출범식, 대중참여 폭 넓혀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2003 5월 대학생 축전'이

행사 준비단계부터 “대중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학생운동단체간 단결과 연대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대학생 축전은 출범식에 집중되어 있던 예년에 비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첫날에는 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로 ‘한총련 출범 10주년 기념대회 및 11기 한총련 출범 축하 한마당’과 ‘청년학생통일한마당’이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치러졌다.

둘째 날에는 △1회 한국대학생 학술제전=철학, 정치경제, 역사, 여성, 문화, 언론 등을 주제로 한 강연 △1회 한국대학생 문화제전=풍물한마당, 춤한마당, 노래한마당, 락 페스티벌 △5월 한국대학생 영화제 △한국대학생교류한마당=3대 3농구대회, 통일10종경기, 6.15마라톤 △네티즌인터넷동호회 한마당 △2003 반전평화 festival=300만 대학생 반전불이 촛불대행진, 반전평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또한 오후 11시 경에는 11기 한총련 출범행사가 열려 한총련 의장 취임식을 비롯한 11기 한총련 출범 선언 마당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재욱 의장은 “국민들과 학생 모두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합법 한총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다 밝혔다.

대학부 dmz@donggu.edu

발했다.

이번 5월 축전에서 주목받은 행사는 1회 한국대학생 미디어영상 페스티벌 행사로 △디카 사진 공모전 △6.13 1주기 추모대회 플래시 공모전 △삼미선·신효순 문학상 △COREA 로고 공모전을 축전 기간 전부터 실시, 온라인 공간에서도 대중 참여의 장을 열었다.

한편, 축전 둘째 날 오전 11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상설적 공동투쟁체 ‘전국학생투쟁연대(준)’는 “반미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대중운동 계획을 협의,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앞으로의 연대투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대학부 dmz@donggu.edu

체육부 전국대회 출전

본교 농구부(감독=최성우)가 제 40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1차대회에 출전한다.

본교는 △한양대 △경희대 △명지대 △단국대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첫 경기는 한양대와 오는 14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삼천포체육관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는 총 10팀이 출전해 8 조의 3위까지 결선에 올라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한편, 전국대학 축구대회에 출전 중인 축구부는 내일(8일) 오후 2시 30분 공설운동장에서 호남대와 두 번째 경기를 갖고, 야구부는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서울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리는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에 출전한다.

후기대학원 일반전형 모집

후기 대학원 일반전형 원서 접수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국내·외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 교학부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로드한 △전학기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면 된다.



'흠뻑' 취해 ...

본교가 오늘(2일) 직원 인사사를 단행했다.

직원 전보인사는 △학사지원실=

신하균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황의돈 △산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김진광 △구매팀=정경섭 △총무팀=김진영 △기획심사팀=허광도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신혜철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김병훈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박세훈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최경진 △중도 학술정보관리팀=이광휘이다.

본교 직원인사

본교가 오늘(2일) 직원 인사사를 단행했다.

직원 전보인사는 △학사지원실=

신하균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황의돈 △산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김진광 △구매팀=정경섭 △총무팀=김진영 △기획심사팀=허광도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신혜철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김병훈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박세훈 △중도 학술정보서비스팀=최경진 △중도 학술정보관리팀=이광휘이다.

보리소

지구윤리 구상과 오계

최근 세계의 종교인들이 인류공동의 윤리와 이의 실천운동을 제안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복합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자기 문화권에서만 통하던 독선적 윤리나 진리주장은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지난 겨울, 본교를 방문했던 미국 템플대학교의 레너드 스위틀러 교수는 초청 강연에서 '보편적 지구윤리의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지구윤리 운동가들은 한결같이 평화의 파괴·지구 생태계의 파괴·인간의 소외, 어린이의 학대, 사회혼란, 불의, 종교적 이념의 폭력, 경제적 불평등, 남녀차별, 물질주의와 탐욕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종교사상가들에 의해 제안된 지구윤리의 원칙이나 방향을 요약해 보면, 세부적인 윤리적 항목을 의미하는 복수로서의 윤리(ethics)보다는 윤리정신을 의미하는 단수로서의 윤리(ethic)인 공동의 에토스를 탐색하고 있다.

세계의 종교나 문화권의 윤리는 그 형식적 다양성과 교의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인류공동의 윤리정신이 내재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교의 5계에 나오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등의 계율은 지이나교나 힌두교는 물론 서양의 섹스의 종교전통의 10계명에도 이에 상응되는 계명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의 오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적극적인 배움, 진실한 말, 청정한 몸가짐, 항상 깨어있음 등의 덕목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오계의 윤리정신은 어떤 신앙에 대한 교조적 신조나 종교적 교의에 관계없이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불교의 오계정신에서 모든 지구적 윤리문제들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처방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지구윤리의 모델을 발견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는 구체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표 불교대학 불교학과

알림
이번 제1369호가 2003학년도 1학기 종합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70호는 2003년 8월 25일자 로 발행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기자의 피'를 수혈받으십시오

뭔가 부족한 듯한 대학생들 동대신문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6월 4일(수) 오후 6시까지 본사 총무부(학생회관 지하)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 ▲문의 : Tel. 2260-3491~2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학과제 시행 설문조사
본교가 본격적인 학과제 시행과정에 돌입했다. 이에 본교생을 대상으로 학과제 시행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면 6.13 1주기
6.13 여중생 암사건이 지난 1년간 남긴 것을 살펴보고, 추모대회에 대해 알아본다.

8면 대자보, 부활을 꿈꾼다
대학여론의 소통구 대자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본다.

생협, 독립법인 추진 가속화 재단·학교에 추진 과정 설명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산업학, 이하 생협)의 독립법인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협은 2002년 법인감사에서 '법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구로 비취집으로 독립법인 또는 학교 직영 부서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아 다음주 재단·학교측에 독립법인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와의 논의 후 재단과 논의를 진행할 당초 계획이 앞당겨져 추진과정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협은 오는 10일 경 이사회를 개최해 △2002년 결산보고 △2003년 예산확정 △대의원 총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봉사단원 모집 명성여고 등 3개학교 파견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단원 접수가 오늘(2일)부터 3일간 참가할 봉사단에서 실시된다.

교육봉사 단원은 사범대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중 동대부속중·고등학교와 명성여고 자고등학교에서 개발활동(C.A) 지도, 과학 실험 보조 등의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33시간 이상 활동 시 1학점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사범대 교학과장은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현장경험을 함으로써 학교 행정과 학생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방학특강 개설 온라인 강의도 실시

언어연구교육원 여름방학 1차 특강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개설강좌는 △영어회화 초·중급 △CBT토플 △기초영문법 △Presentation skill △Me & My life 초·중급이며, 이중 Presentation skill은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도 실시한다.

특강을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무료 웹토익 수강 등의 특권이 부여된다.

접수는 오는 9일부터 해화관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한편, 2차 특강은 오는 8월 4일 개강한다.

방중 학내공사 예정 학생회관 외벽 도색 등

학생회관 외벽 도색 등 학내 공사가 방학과 동시에 시작된다. 시설관리팀은 중앙도서관과 상록원 사이의 사면 붕괴위험에 대비해 이 부분을 흙으로 채우고 잔디, 나무 등을 심어 휴게실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동국관 L동 각 층의 화장실 교체 △해화관 옥상 방수 공사 △학생회관 외벽 도색 공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해화관 옥상 방수공사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규교직원 하계수련회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신규 교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수련회가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다.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108잡화 △참선 △찬불가 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안중철 정각원 법사는 "산에서의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도야를 성취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학당 불학기 수료식 수료증·졸업장 수여

한국어학당 불학기 수료식이 내일(3일) 11시 다함광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학기 한국어 과정을 마친 4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료식에서는 성적표, 수료증 및 졸업장과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상이 수여된다.

또한 마술 동아리 '마식'의 특별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고시1차 합격생 장학금 신청 오는 14일까지 연장

행정·사법·언론 고시 1차 합격생 장학금 신청이 학생들의 신청 재조로 오는 14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합격 확인서 △재학(졸업) 증명서 △거래은행계좌사본을 계산고시학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재학생의 경우 2학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졸업생은 수험보조비가 지급된다.

구도서관 공간배치 '난항'

학교·불대·법대 의견대립 ... "논의자리 마련해야"

중앙도서관이 도서신관으로 이전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으나 구도서관 공간배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6일 △1층=법대 △2층=1개 단과대와 관련대학원 △3·4층=교수연구실로 확정하고 각 층의 서고도서 자리에 1천 500석의 열람실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확정되지 않은 2층은 현재 추진중인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이 허가될 경우 불교대를 비롯한 불교 관련 연구관이 유용하게 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사팀의 한 관계자는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1

개 단과대와 연계 대학원이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대 학생회는 2층에 1개 단과대가 들어설 경우 △공용강의실·컴퓨터실 등의 공간배치 불가능 △학자학업의 불이행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광호(법3) 법대학생회 정책국장은 "공용시설이 없을 경우 구도서관은 기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1층=법대 △2층=공용강의실·컴퓨터실·휴게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측은 설계를 끝낸 후 공용 컴퓨터실 등 시설부분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나 학

생회는 "현실적으로 공용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교대는 "불교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학술과 실험을 병행하기 위해 구도서관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불교대는 현재의 분관을 사용하였으나 지난 96년 학술문화관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국(선4) 불교대학생회장은 "그동안 절대공간이 부족해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을 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새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는 불교대와 법대의 '단과대 싸움'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학자부위원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1·2층=모의법정을 포함한 강의실 △3·4층=교수연구실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8월 경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경선 시설관리팀장은 "공간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설계가 끝난 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술기 기자
chof55@dongguk.edu

회전무대

이른 방학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조기종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올해 16주 수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이 15주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수업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전에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조기종강! 즐거워하는 사이 버려지는 당신의 권리(!)"

20세기 박물관

○...박물관 홈페이지는 아직도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최근 열리는 전시회나 새로운 유물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 마지막 게시물이 2000년 자료인 것이라고.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만큼 사이버 박물관의 신속한 자료 업데이트 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옛 것을 보존하는 박물관, 홈페이지도 옛 것만을 보존한다(?!)"

2% 이야기

○...지난 달 28일 통장을 확인한 학생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데.

이유인즉 은행 결제가 지연돼 등록금 환불이 예고 없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사전에 게시관 또는 공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알려 많은 학생들의 헛걸음 하는 것을 막았어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등록금 2% 환불 과정, 아직도 2% 부족해!"

물난리 주의보

○...장마철 중앙도서관 출입구에서는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유인즉 일부 학생들이 담배꽂이를 배수구에 버려 많은 양이 쌓여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장마철 물이 역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꽂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동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손쉬운 담배처리, 손쓰기 어려운 장마로 이어진다(!)"

대의원 총회 성사

새터 감사보고·총학생회 선거회칙 등 개정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총회는 전체인원의 1/3이상인 72명이 참석해 성사됐으며 △35대 총대의원회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 △새터 부정기 감사결과 보고 △총학생회·총대의원회 회칙개정 △학생회비 분배 및 인출에 대한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정된 회칙은 △학생대표 자원의 의결권 △후보자 추천인원 등이다. <표> 참고

또한 각 단과대 대의원장은 △사업 △조직 △예산으로 나누어 진행된 새터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보고된 결과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공고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구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갑자기 상정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밖에 대의원총회 참가자는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3장 19조	의결에 관한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생회장의 경우에만 과부 학생회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제18장 91조	총학생회 정·부회장은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총여 정·부회장 추천은 구성원 100인 이상으로 한다	회원6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구성원 300인 이상으로 한다
제18장 93조	총대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는 11월 중, 총대위원장 선거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총대위원회 정·부위원장, 총대위원장 선거는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공용실습실 컴퓨터 교체 예정

완전평면 모니터 구비된 70여대

방학동안 공용 실습실의 컴퓨터 70여대가 교체될 예정이다.

새 컴퓨터는 △CPU 2.4G 이상 △메모리 256MB △완전평면 모니터가 구비된 것이며 △명진관 2층 =30대 △정보문화관 P동 Esc4=35

대 △컴퓨터 실습실의 교수용 컴퓨터 5대가 교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 컴퓨터의 성능 저하로 인해 생기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즐거워 기다림 ...

제일은행을 비롯한 학내 현금지급기는 등록금 인상 차액 환불이 진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환불액을 확인하는 학생들로 인해 만원을 이뤘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1면에서 이어짐

▲학생추천 교양강좌 개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양교육의 다양성·현장성 등을 고려한 강좌개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의돈 교양교육운영실 과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양교육의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추천 교양강좌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교양강좌 개설은 100% 효과에 맡겨져 있어 구조적인 부분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점포기제=학점포기제 시행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김윤권 정보통신학과(야) 학생회장은 "취업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재수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포기학점을 6학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수강과목 선택 오류를 막기 위해 수강정정·취소·재수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포기제를 시행하는 것은 소수 인원을 위한 제도라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변민우 학사지원실 계장은 "매 학기 5~6%의 학생이 재수강을 하며, 대부분 지방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2003년도 전공학문연계 대학사회봉사활동 공모 지원

- 목적**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된 봉사활동 학습을 통하여 경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대학생 봉사활동의 생활화와 문화적 및 다양한 대학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사업내용**
가. 대학 전공학과 연계된 학부, 학과 단위의 봉사학습(국내봉사)활동 공모 지원
나.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및 물품구입비 지원
다. 활동기간 : 하계방학기간~동계방학기간까지, 2학기 포함(2003. 6~2004. 2)
라. 지원내용 :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및 물품 구입비
마. 신청자격 : 대학의 학부·학과 학생 또는 교과 지도교수
-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2003. 6월 2일 ~ 6월 18일 까지
나. 신청서류 : ① 2003 전공학문 연계 대학사회봉사활동 지원신청서(소정서식) 1부
② 2003 봉사활동 계획서(소정서식) 1부
③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수록 디스켓 1개
다. 접수방법 : 동국참사팀봉사단(안내 및 서식비지)
- 공모선정 및 지원금 결정·교부**
가. 선정 심사기준 : 전공관련성, 지도교수참여도, 교과연일여부, 학생참여도, 과급효과성, 적정예산 편성 등 객관적 기준 적용
나. 지원금 결정 및 규모 : 심사 기준에 의한 등급(A,B,C)심사 후, 심사등급에 따라 프로그램당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지원서 제출** : 동국참사팀봉사단(본관 9층 ☎ 2260-3049)

문의안내 및 자료 제공 :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전화:783-9860)/http://kuoss.kcu.or.kr
- 동국참사팀봉사단(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팀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시행시기** : 2003. 6. 2(월) ~ 6. 15(일) 중.
- 대상** :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도 중 일렬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도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을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200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시행

-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3. 6. 16(월)~18(수), 8. 25(월)~27(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복학**
가. 접수일자 : 2003. 6. 9(월)-11(수), 8. 18(월)-20(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학회기간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3년 9월말이 전 전역예정자.
다. 2003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중 전공 미결정자는 소속대학 교과과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3. 6. 9(월)~11(수), 8. 18(월)~20(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적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적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재입학 허가시 등록기간 : 2003. 6. 16(월)~18(수), 8. 25(월)~27(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되며, 재입학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함을 유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상담 바랍니다.

교무처

학과제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학과제 도입, 논의부터 돼야

학부생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91% "논의과정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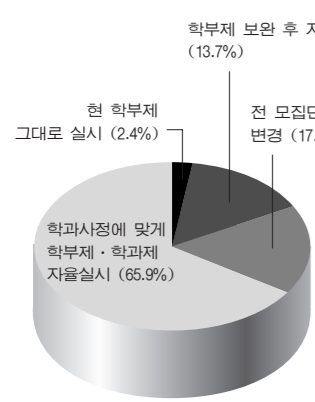
"고등학교 4학년이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학부생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매년 털어놓는 불만이다. 지난 96년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는 이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는 기간이 아닌, 인기학과에 '합격' 하기 위한 학점경쟁기간만 만들었다'는 비아냥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학과제·학부제 난상토론을 벌일 때도 많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29일 학부생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대부분의 학생들도 논의과정이 빠져 있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과제 시행 관련 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82%) 가운데 72%가 '논의과정 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19%는 '충분한 연구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연구'도 결국 대학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91%의 응답자가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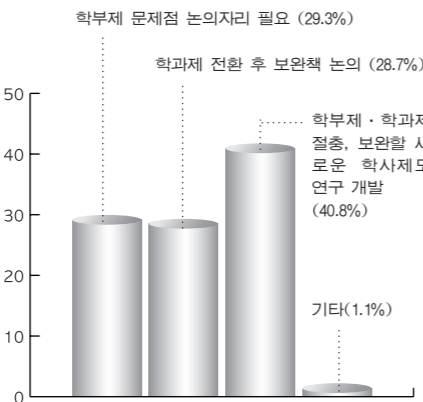
응답자 72% 현 학부제 불만

학과제 시행과정에 대한 학생들과의 논의과정 부재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8%)이 학교측의 2004년 모집단위 변경안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심지어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문과대·이과대·공과대의 응답자 중 69%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이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이미 학부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78%) 불만도 있으며(71%) 학과제 시행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있다(53%)"고 대답한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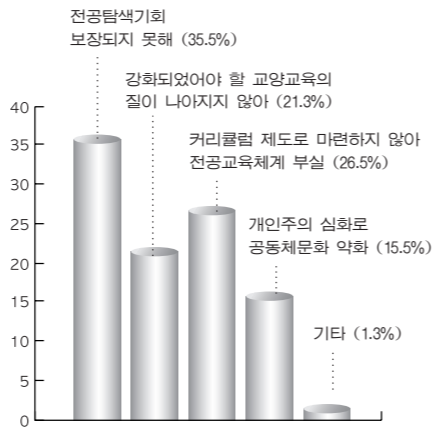
공극적으로 바라는 학사제도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부제 불만족 이유는?



가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무관심문제도 돌리기도 힘들어 보인다.

결국 학과제 시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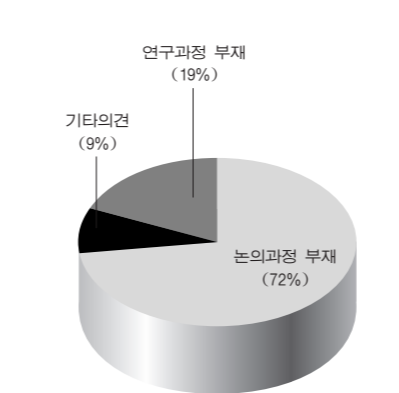
학과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단과대 학생·교수간에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발하게 벌이려는 노력은 물론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측의 '구상'을 접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또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교육 강화가 관건

그렇다면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돼야 할까. 학과제가 현재 야기된 학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부제의 문제부터 제대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부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학점경쟁으로 인해 전공탐색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5.5%)고 대답했으며 두 번째로 '학부제에 맞는 전공교육 커리큘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26.5%)는 점을 꼽았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전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따라서 학과제를 시행 하더라도 모집단위를 학과로 세분화하는 것 외에, 전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부제의 장점으로 꼽혀왔던

학과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전공탐색기간의 보장'마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 점은, "본교는 겉으로만 학부제가 시행된 것처럼 보였을 뿐 아직 진정한 학부제는 아직 없었다"는 일부 비판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과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자신의 학과가 학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수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사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각 학과 사정에 맞게 학부제·학과제 자율적 시행' (65.9%)이 1위로 꼽힌 데다가 가장 시급한 과제 또한 '학부제와 학과제를 절충, 보완할 새로운 학사제도 연구·개발' (40.8%)이 1위를 차지했다.

결국 학과제에 찬성한 대다수 응답자들도 학과제 자체에 무조건 찬성했다기보다는 현재 학부제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제도라도 어떤 논의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8년 전 정부와 대학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학부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과제 또한 논의를 통해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내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사설

구도서관 공간배치 합리적으로

학교측이 구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했으나 공간배치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구도서관 공간배치는 지난해 말 총장실 점거 등으로 진통을 겪고 새 총장 취임으로 학자합의안의 내용이 바뀌는 등 혼란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학교측은 공간배치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도서관 2층에 대해 △학교측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이 승인될 경우 불교대와 관련 대학원 이전 △법대는 공용시설물 설치 △불교대는 학업과 신행은 목적으로 불교대 이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쟁은 '바늘 하나 설 곳 없는' 본교에 절대공간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타당한 근거를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논쟁이 불교대와 법대의 '단과대 이기주의' 싸움으로 흐르는 등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본교 홈페이지 '나의주장'에서는 각 단과대의 편들기식 발언이나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때문에 총학생회는 구도서관 공간배치가 더는 몇몇 단과대끼리의 '공간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인 논의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측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는 식이 아닌 열린 자세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도서관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이며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또한 '학교측으로부터 불교전문대학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불교대의 한 학생 말이 시사하듯 현재 추진중인 불교전문대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해 대학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본교는 시험 때마다 발생하는 열람실 부족, 빼곡이 들어선 강의실 등 공간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간배치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야 한다.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충지를 모아야 할 때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이상영, 부주장: 구분철,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국대학교 직원 초빙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Table with 3 columns: 모집부문, 캠퍼스 및 인원, 응시자격. Lists various positions like '일반직 I (일반행정)', '일반직 II (연구/기초)', etc., with their respective locations and requirements.

- 공통자격: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003.8월 졸업예정자 포함),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4.5단점) 이상인 자, 1973.7.10이후 출생자 (남자는 병역 또는 면제자), 본 대학교 전학이남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1차 시험: 필기시험(영어, 논술), 1차 면접(필기시험 종료 후 실시) ※ 보존대상자 가산점 부여, 최종면접: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제출서류

- 지원서 (소정양식,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 본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dongguk.edu),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공인 어학성적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1부, 모집분야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보존증명서(해당자) 1부,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1부 - 필수제출서류인 (대한불교조계종총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사본)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3. 6. 3(화) ~ 6. 5(목) 3일간, 17:00까지 각 캠퍼스 총무팀 ※ 방문접수(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1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경주 지원자는 서울캠퍼스에서 시험을 실시함.

문의처: 서울캠퍼스 총무팀(☎02-2260-3654/5), 경주캠퍼스 총무팀(☎054-770-2062/3), http://www.dongguk.edu(지원서, 신청증 등을 Down 받을 수 있음)

낙산학사 개장 안내

- 1. 개장기간: 2003. 7. 1 (화) - 8. 24 (일), 2. 접수기간: 2003. 6. 12(목), 3. 배정방법: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배정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음., 4. 접수처, 시설사용료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Table with columns: 실배 수용인원, 기준(사용일수), 시설사용료, 예약금, 캠퍼스별 배정, 접수처.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and fees for the Naksan Hall.

Table with columns: 구분, 신청기간. Lists the application periods for different groups (1st to 9th).

5. 유의사항

- 가. 본교 재학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학생실의 예약금은 접수 시 시설관리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취소도구는 개인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야하며 위반 시 퇴실조치 합니다. 마.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통편은 없습니다. 바. 출발 전 예상 도착시간을 낙산학사(033-671-2181 / 구내 607번)에 연락하여 주시고 저녁 9시까지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성수기에 잔여객실이 있을 경우나 비성수기에는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서울:3083 / 경주:2079)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무처

2003-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공고

2003-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에는 영어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험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2003년 6월 (정확한 일시는 추후 공고), 2. 대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주의사항: 복학예정자로서 휴학 당시 장학금을 수혜한 자, 이수학점의 부족 또는 성적 미달자, 이중장학 수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3. 인원

Table with columns: 장학명, 선발대상, 장학금, 비고. Lists scholarship details for 고시A, 고시B, and 고시C.

4. 시험과목

Table with columns: 시험구분, 학년, 응시과목, 비고. Lists exam subjects for 1st and 2nd year students.

- 5. 문의: 계산고시학사 2층 고시반 사무실 (TEL. 2260-8685, 조교 011-9284-3908)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중생 압사사건이 오는 13일로 1주기를 맞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건은 '반미의식'을 고조시키고, 촛불시위를 탄생케 하는 등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중생 압사사건이 남긴 것을 되돌아보고 오는 13일 진행될 6.13 1주기 추모대회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별써 1년'
월드컵, 그리고
미선·효순의 죽음.
월드컵은 자신감을 남겼고
죽음은 분노를 남겼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은
자신감과 당당함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수많은 이들의
촛불이 그것이다.

'별써 1년'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인가. 며칠전 한 검색포털사이트에서는 '월드컵 1주년'이 인기검색어로 선정된 적이 있다. 4강 신화와 뜨거운 거리응원전은 우리 국민이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을 선사했고, 언제라도 다시 '꺼내 보고' 싶은 특별한 경험으로 간직됐던 것이다.

그러나 16강 진출기대에 한껏 들떠 있던 그 때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의 훈련차량에 깔려죽었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리는 이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 파주에 살던 두 여중생, 심미선·신효순 양이 주한미군의 트레일러 차량에 압사당한 사건이 오는 13일로 1주기를 맞는다.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또한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미군이 미국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빠르게 퍼져나간 이른바 반미의식과 촛불시위의 열기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언론인 흥세화 씨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사건해결에 비협조적인 주한미군의 오만한 태도와 피의자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은 미국이 우방이라는 굳은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했고, 여기에 월드컵을 통해 배운 자신감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도 육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는 성공회대 한홍구(역사학) 교수의 분석

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여중생 압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두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판지일보의 한 칼럼니스트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방식으로 미국에게 화내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이 같은 '전환'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분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중생사건해결을 위한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한미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과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차분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즉 한가지 사건에 '분노'했다기보다는 남북미간의 모순된 구조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여중생 압사사건 해결을 위해 모인 촛불시위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이라크전 국군 파병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외교 등 북미관계를 둘러싼 다른 사안에 대한 목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는 13일 여중생 범대위는 여중생 압사사건 1주기 추모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모대회는 '추모'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이 1년 간 우리사회에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가 가져온 변화들도 다시 한번 '꺼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여중생 압사사건 기록 해결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여중생 압사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파주에 살던 두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 양이 훈련 중인 미군 트레일러 차량에 깔려 죽은 사건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의 전모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군은 여중생을 보았지만 △장비가 낡아 지휘관이 운전자에게 전하지 못했고 △차량 운전사는 차량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중생 범대위와 유가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 증언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무부가 여론에 밀려 미군에게 처음으로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의 재판은 미국법정에서 이루어졌고 사건 피의자였던 마크워커 병장과 페르난도 지휘관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범대위와 각 시민단체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있다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적은 없었다.

한편 올해 초부터 경찰은 범대위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강제연행하는 등 촛불시위에 강력대처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 진행된 촛불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책임을 4개월이 지난후에야 묻기도 했다. 여중생 범대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추모집회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며 "경찰의 태도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은 정부의 대미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6.13 1주기 추모대회 집행위원장을 만나 “‘당당한 우리나라’ 되찾는 계기로”



오는 13일은 여중생 압사사건이 일어난 지 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여 서울을 비롯한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시민뿐 아니라 미국의 재미교포까지 함께 하는 6.13 1주기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8일 추모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집행위원장 이용대씨를 만나 6.13 1주기 추모대회의 준비상황과 의의에 대해 들어보았다.

- 6.13 1주기 추모대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 이번 행사에서는 촛불시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문화제와 함께 시민들의 발원마당을 마련해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거리를 행진할 예정이다.
 - 10만 준비위원 모집이 목표인데 5월 28일 현재 5만명정도 확보했고, 하루에 4천명씩 새롭게 참가하고 있어 순조롭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촛불시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현실을 자각하고 민족 자주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는 평화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일깨우는 교양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게다가 이전의 시위와 다르게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6·13 1주기 추모대회가 가지는 의의는
= 여중생 압사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에게 약간의 보상금과 형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6.13 1주기 추모대회'를 통해 다시 진상규명을 한 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도 개정해야 한다.
 - 대회 이후의 계획은
=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가 매듭지어 지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광화문 촛불시위도 계속 지속할 것이다.
- 〈별〉
dbswls@dongguk.edu

미리 살펴보는 6.13추모대회

6.13 1주기 추모대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평화의 새 = 오는 13일 추모행사장인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평화의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촛불과 종이컵, 페트병을 이용해 평화와 민족자주를 상징하는 흰 새를 만들어오자는 제안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의 주인공은 그동안 인형을 만들어 촛불시위에 참여해온 만화가 박건용 씨. 평화의 새를 만드는 방법은 여중생 범대위 홈페이지(www.anti.migun.or.kr)에서 볼 수 있다.

▲6.13 플래시대전과 추모문학상 = 6.13플래시대전과 '신효순, 심미선 문학상' 행사가 각각 10일과 13일까지 진행된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제작의도를 함께 담은 파일을 종합예술단 천명홈페이지(master@artofpeople.org)로, 문학작품은 △소설단편 원고지 100매 △소설중편 원고지 200매이고 △시 3편 이상 △시나리오 분량 자유 △체험수기 원고지 150매로 작성하여 심사팀(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212번지 4층)으로 보내면 된다.

'6.13 플래시대전' 과 추모문학상 모두 응모자격제한은 없다.

한국사회의 '과학사회학'

과학은 사회적 맥락을 거부하는가

과학은 일차적으로 기존 지식에 성찰을 그 기반으로 한다. 당연히 사물이나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전한다. 의심할 수 없는 수학적 논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그 합당한 근거와 합리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다.

과학기술과 사회(STS)

과학적 지식은 여타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나 이해관계 위에서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 진리성을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유사 이래 그 유래가 없는 독특한 사회적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과학은 인지적, 인식론적 범주나 연구자 개인의 지적 유희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닐까.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본질은 오히려 다른 지식에 비해 과학적 지식이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우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는 정언명령적 믿음이나 헤게모니는 아닐까.

이러한 '사회속에서 실제 기능하는 과학'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분야가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과 사회'(STS)의 한 분야로서 과학사회학이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개념화되고 실험되고 있다. 실제 선진국의 구체적인 사회여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탈맥락화된 지식체계이다. 그러한 여건에서 대부분 과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맥락에 특수한 과학적 실험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때문에 과학이 사회속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학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거나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 사회적 맥락을 무시할 수 있을까. 첫째, 한국사회적 맥락에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단순한 폭로이며 무의미한 작업이다. 1996년 정수처리제 사건처럼 안정화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여 소독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정수장의 물을 시료로 연구하였을 때 가능하다. 또한 수돗물 불소농도가 미국에서 1ppm를 기준으로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수돗물 불소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연수의 불소농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어서 먹는 우리의 음식습관, 녹차 등 다양한 불소섭취량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등은 한국사회적 맥락에서 과학적 실험이 갖는 직접적인 의미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학의 보편성(탈맥락성)은 쉽게 의존성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과학적 지식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존성이 높다. 과학지식의 권위가 철저히 의존적이다. 과학지식 자체가 아무리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과학지식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 과학지식이 형성된 선진국의 사회적 맥락과 상이한 우리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학지식의 사회적 활용은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맥락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의존성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과학지식생산기반을 허물다. 지식수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

시적인 현상이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야별 격차가 심하여 자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얻기 힘들며 전통적인 과학지식의 계승발전기회도 무시된다.

셋째, 우리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는 도구적인 과학화를 낳았다. 과학이 국부의 원천으로 부국강병이나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도구화되어 있다. 과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활세계적인 의미부여가 결여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첨단과학을 중시하게 되었다.

'사회의 과학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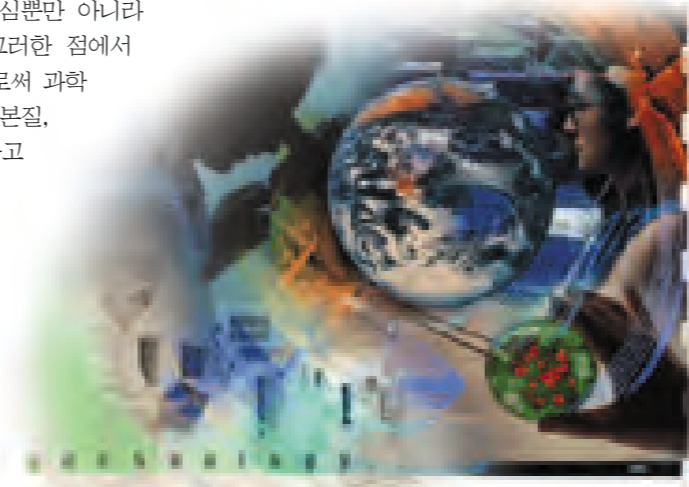
때문에 과학 자체에 대한 연구자는 있으나 과학의 사회적 영향 등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전문평론가나 기자, 시민들의 이해도도 매우 낮다. 특히 일반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상식이 매우 낮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부국강병의 도구로써 과학 기술을 바라보게 되고 과학기술의 본질, 실제 그리고 힘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따라서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김영식, 1998)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학사회 논쟁이 언론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거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한 결론으로 치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학의 각 분야에 따라 심하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이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과학화에 자원을 집중하였다.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여 체계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은 집중지원으로 인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만 경제적 가치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생활세계의 과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이래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과학화'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과 대학전문가의 양성, 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극복 및 시민참여, 시민과학교육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탈근대론, 반성적 근대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학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것으로 과학사회학의 중요한 기여라 할 것이다.

서 이 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북한 문학서 전시회

북한 문학작품도 이제 대중속으로

박경리 '토지', 최인훈 '광장'. 모든 사람이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60년대 문학 작품들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동안 '금서'로 낙인찍히는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나라사람이 아닌 그들, 북한 사람들의 문학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현대문학관은 개관 7주년을 맞아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 60년대 북한의 문학 작품을 한 곳에 모은 '한국전쟁 전후 북한 문학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전속회 한국현대문학관 이사장은 "광복과 6.25전쟁 전후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북한 문학인들은 험난한 시대를 헤쳐

가며 이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며 "전시회는 이러한 문학적 승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북한에서 출간된 문학서적을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전시하는 것으로 김기림, 리용악 등의 시집과 한설아의 소설 '청춘기' 등을 비롯해 평론, 희곡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북한 활동 주요 문학가' 코너를 통해 한설아, 리기영 등 8명의 북한 주요 문학가를 소개하고, '북한 문학사' 코너를 마련해 북한의 문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시회를 주관한 전우성(58)씨는 "그동안 흑백 복사지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겨우 볼 수 있었던 많은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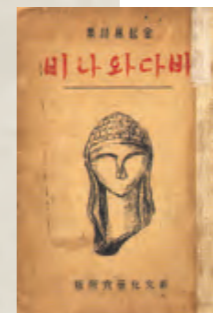
한편 전시회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북한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연세대

신형기(국어국문학) 교수는 일찍부터 북한에서 '정신'은 테크놀로지보다 우월하고 이를 극복할 것으로 간주됐으며 "황건 '불타는 섬', 김병훈 '길동무들' 등의 소설은 이러한 북한의 '정신주의'와 관련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 박태상(국어국문학) 교수는 주체사상 이후,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의 문학은 정부나 '조선 민족 제일주의'와 같은 사회적 슬로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 biệt히 관심 갖지 않은 이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북한 문학 작품들을 대중 속으로 갖고 온 '북한 문학서 전시회'. 이번 기회에 바로 옆으로 다가온 북한의 문학 작품을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한국 현대문학관 바로 앞에 위치한 본교의 구성원들이라면 말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김기림의 시집



한설아의 소설 '청춘기'

학술단신

남북경협 현실과 변화하는 북한 경제 세미나

본교 경제경영연구원(원장=정용근·회계학)이 '남북 경제협력의 현실과 변화하는 북한경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세미나를 오는 3일(화) 오후 2시부터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남북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이동철(한국 무역진흥공사 북한팀장)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경제의 변화=박순성(북한학) 교수의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를 연다. 경제분야는 성공회대 신정완(경제학)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계승=장상환 민노당 정책위원장 △민생현안=인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의 발표와 성공회대 유철규(경제학) 교수가 발제한다.

정치분야는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여정부와 실종된 정치개혁=김운철 민노당 상임정책위원 △빛나간 통일, 외교, 안보=윤영삼 민노당 평화건축운동본부장이 발제한다.

사회·노동 분야는 성공회대 오유석(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회개혁=이재영 민노당 정책국장 △노동·노사관계=김태연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장이 발제한다.

종합토론은 성공회대 손학재(정치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여와 개혁의 길, 비판과 대안=노희찬 민노당 사무총장의 발표와 성공회대(조희연) 교수, 한신대 조현욱(정치학)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토론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투쟁-중동평화안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오는 4일(수) 오후 7시 30분 고려대 이공계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다함께가 주최, 고려대·성공회대·한신대 총학생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안티파다-시온주의의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저항'의 역자인 다함께 중앙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2천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02)3295-4773, http://altogether.jimbo.net/에서 알 수 있다.

교수동정

△김규석(건축공학)=지난 1일 한국 강구조학회 회장으로 취임.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관객

소나기

내가 원하는 학사제도는 바로 이런 것!



- △조기 졸업 시켜주세요.
- △모두 열심히 하면 모두 A받을 수 있는 학사제도로...
- △학점취소제
- △충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수평가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 △학점포기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수요자인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 △짧으면 짧을수록 더 학점이 안 나오는 편이니, 만학도 분들, 그만큼 누리셨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
- △학과제도가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
- 인사정도는 기본으로 본인이 알아서 실천하기를...
- △제도도 좋지만 학생들 수업에 대한 열의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듯 합니다. 수업 끝나기 30분전에는 조르면서 "아이!" 하고 수업 끝나면 무섭게 달리기하고 휴강하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 △누구든지 A를 주세요. 그래야 명문이 될까?
- △절대평가제를 어서 도입하도록 해 주세요.
- △1학년 전공수업이 왜 3.4학년 위주로 진행되나요? 1학년들한테도 성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점수를 들려주세요.
- △교양 선택이든 교양 필수이든 학년에 따라 차등 평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회 나가서는 1년 차이가 별 것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1년 차이는 너무 큼니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학사행정이지 이런겁니까?
-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부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대평가제도는 싫습니다. 하루빨리 절대평가제로 바꿔주세요.
- △학과제가 빨리됐으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추진되던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 논의가,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식장 입구에서의 항의 시위를 계기로 급격하게 실종되고 있다.

항의시위는 당연한 권리

새 정부 개혁의 얼굴 역할을 하던 강금실 법무장관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잇달아 한총련을 비판하고 당분간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다행히 법원에서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마녀사냥식 한총련 매도는 주춤하고 있지만, 한창 진행되던 한총련 합법화 논의는 쑥 들어가 버린 셈이 되었다.

비록 상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학생들이 평화적으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일진대, 이를 구실로 기존에 추진되던 한총련 합법화 논의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보니 민주, 개혁을 기치로 걸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곰곰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논단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정부의 '인권지수'

위해 싸우다 희생된 5월의 영령들 앞에서, 대학생들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보인 "미국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사대굴종적 언동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 대학생들의 그런 항의조차 없었으면 도리어 비정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피켓 정도를 사용하는 항의를 난동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반응임이 분명하다.

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도리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 또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가기 때문이다.

한총련 합법화 '시혜' 아니다

벌써 몇 년째 목은 속제가 되어 있는 한총련이 적성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특별기고 - 과학기술발전, 이공계 활성화부터

기술혁신은 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및 발전은 기술적 복잡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어 학문의 학제간 협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일본의 경제위기가 과학기술투자를 게을리 한다고들 한다. 기초과학을 중요시한 미국에 비해 응용 과학연구에 치중했던 일본이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많다. 1997년 OECD는 현대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미국이 42%, 일본이 75%라고 보고했으며, 기술 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선진국이 11.2~15.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수한 기술인력의 배출은 21세기 우리의 발전 전략이며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우수한 많은 자연계 전공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함에 따라 엔지니어의 질적 수준도 추락할 위기에 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자연과학분야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기술인력을 전 시하는 새로운 사농공상의 사상이 팽배함에 있다. 43%이었던 자연계지망자 비율이 27%로 추락한 것은 오늘날 한국과 학기술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모든 산업 경쟁력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는 방법은 연구 혁신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기술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 미래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함도 우리의 몫이다. 지난해 8월에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루사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자연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기술은 위대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김규석 건축공학과 교수

학생 인권 침해하는 NEIS

요즘 NEIS 문제로 말이 많다. NEIS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발표에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여 NEIS를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이 이를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초기에 NEIS 실행을 반대하던 교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NEIS 실행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속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그들의 반발은 NEIS 성격의 문제로 반발하기보다는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이라는 단체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해계모니를 지키기 위한 명분 없는 태도의 변화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

영화평-와일드 카드

형사들의 고뇌 다른 '진짜' 형사 영화

와일드 카드는 한마디로 '형사 영화'라고 설명될 수 있는 영화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영화보다 형사들의 생활 자체에 충실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도 물론 사건과,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형사들에게 '잡히기 위한' 것에 머무른다. 쇠구슬을 이용한 일명 '퍽치기'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잡고서는, 이에 대한 언급 한번이 없다. 바로 다시 또 다른 범인을 잡기 위해 뛰어가는 형사들의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 만큼 형사들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짚어준다.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는 그들의 생활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 와중에 느끼는 그들의 고뇌가 우스갯소리 같은 대사

다들 알다시피 한총련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연방제 관련 강령규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한총련은 매년 새로 당선되는 각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을 성원으로 하여 매년 새로 구성되는 단체인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11기 한총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모는 근거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거듭 폐지를 권고한 반인권 약법이고,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엘네스티인터내셔널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도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개·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약법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인 이 시점이 한총련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마다 총학생회장 선거만 치러지고 나면 바로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되는 야만적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검찰 등 공안당국이 우리의 후세대인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을 대중적으로 지지하여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하고 있다는 모순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NEIS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한편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인권영화제는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첫째 제주도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터'를 상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가 기소되는 등 많은 우려곡절을 겪었지만, 인권영화제는 '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면서 이 나라의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인권 영화제를 보면서, 학생의 인권 침해라는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보이는 교총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민수(사과대 사회4)

를 통해 다가온다.

잠든 모습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딸의 키를 가로로 재는 아버지와, 칼에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칼을 권 아이들만 봐도 몸이 떨리는 형사, 총기 사용에 관한 그들 내부의 갈등, 대한민국 경찰은 총을 쏘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져 맞춰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면 우스갯소리는 끝까지 갈등하던 양동근이 범인을 향해 총을 말 그대로 '던져 버리는' 장면에서 증명된다.

주, 조연 할 것 없이 개성있는 연기와 탄탄한 시나리오로 영화는 시종일관 재미있다. 하지만 다 보고 나서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수, 아수?" 하는 형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여운이 남는다. 나름대로 작품성과 오락성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현(사범대 국교2)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제1368호 '퍼즐-동대 신문이 보인다' 정답자 = 유재성(체교4), 문명경(영교4)



모니터링 간담회

지난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지난 학기 독자평을 담당했던 본지 모니터링 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기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다. 이를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지난호(1368호) 평가

이종관(영교3, 이하 이) = 문화면(10면)의 '문화인 릴레이 대답'을 관심 있게 읽고 있다. 우리 사회 이른바 지식인, 문화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K교수 성추행사건 관련 1인 시위를 보도한 학내보도면(2면)의 사진기사는 사건자체를 있고 지내던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황현실(사회4, 이하 황) = 대학내 교수 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잊혀지기 쉬운데, 동대신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여론면(8면)의 지상논쟁 '학과제 회귀 무엇이 문제인가'는 학내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진환(개교100주년기념사업팀 과장, 이하 김) = 문화면(11면)의 학과실 꾸미기 행사 기획은 의미가 좋았지만, '학과실 이용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해설이 없어 아쉬웠다.

사회면의 '새만금 간척사업반대 3보1배 현장'은 현장감을 잘 살린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주제기획면(6,7면)의 대동제 기획은 다양성과 기획성이 미흡한 현재 대학축제의 현주소를 잘

파악했다고 본다.

전체 개괄평가

김 = 학내보도기사는 다각적인 접근이 아쉬울 때가 많았다. 취재 전에 사전지식을 충분히 쌓아 놓는다면 더 심층적으로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

황 = 신문이 배부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다. 늦게 나온 신문은 시간에 쫓겨 만든 것 같아 신뢰가 덜어 가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논조가 조심스러운 느낌이다. 단순히 양쪽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총련 관련 기사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다. 학내에 다른 진보진영 단체도 있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 = 한총련 관련 기사가 비중 있게 실리는 것은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우리사회가 아직 풀지 못한 이슈,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동안 지면화면 기사 중 해설보도면의 연재기획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와 '처장 릴레이 인터뷰'는 매우 의미 있었다. 특히 등록금 인상관련 기사는 '학원자주화투쟁'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방향을 명쾌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한다.

정리 =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경영학부 03 신동근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연인이~ △이리랑 정기공연 축하드립니다. △해관이영! 결혼 축하해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jung △김영심♡감미화 300일 축하해요 -DCKK 일동

△양정·진명 동문회 두 컵 탄생! 예쁜 사랑 하거라~ -동문회까페 주임장

△정통과 해화랑 회계과 현수후배 생일 정말정말 축하해! -야장

△생자대 박혜연양 생일 축하해. 이웃백가지. 혜연아~ -MY, NR, SJ

수고하셨습니다

△24시간만에 국가고시(운전면허증) 합격한 근호야. 수고했어. -총학생회

△불교대 농구부 헤스퍼러스 수고하셨습니다. △국교과 4학년 졸업사진 찍느라 애썼다.

△나아들어 학교 다니는 해영, 현숙 언니!! 이번 학기도 얼마 안남았네!! 언니들 파이팅. △단풍엔 정기공연 잘 끝났습니다. -푸코

열심히 하시다

△헤스퍼러스 2기 여러분 여러분도 신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과부 학생회 친구들 열심히합시다!! △6월 10일 피어리스턴 정기공연 모두다 파이팅!

△6.13, 6.15 동국대 실천단 열심히 삼시다. -불사

△창립제 파이팅 -Y.H 24기 일동

그리고...

△미선이·효순이 1주기 추모대회 준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총학생회

△기숙사 만들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한총련 합법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학생들의 후생을 보장 하는게 올라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6/2)	비자릭순두부찌개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갈비냉장단 (1500)	햄숙어찌개 (1500) 불고기백반 (1800) 얼무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김치불고기잡밥 (3200) 카레라이스 (3000)
화(6/3)	참치우거지탕 (1500) 돈갈비찜 (1800) 회덮밥 (1500)	소고기미역국백반 (1500) 참치콘볶음밥 (1500) 콩글리요양무침 (1500)	된장찌개 (3000) 해물덮밥 (3500) 닭강정조림 (3200)
수(6/4)	설렁탕 (1500) 김치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육개장 (1500) 오징어가스 (1500) 두부김치 (1500)	된장찌개 (3000) 대구지리 (3200) 생야채비빔밥 (3000)
목(6/5)	소고기버섯찌개 (1500) 낙지제육볶음 (1800) 간짜장 (1500)	닭곰탕 (1500) 미트소스볶음밥 (1500) 제육덮밥 (1500)	된장찌개 (3000) 스파게티 (3200) 이면수국이 (3200)
금(6/6)	현 총 일 휴 무		

문화인 릴레이 대담

- ① 민족문화 - 류기형(민족예술단 우금치 대표)
- ② 대중문화 - 전유성(개그맨 겸 연출자)
- ③ 사회문화 - 황철민(다큐멘터리 감독)

“사회문제 들추는 ‘문제의’ 영화가 대중과 대화하는 매개 될 것”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황 = 가끔 젊은 친구들이 유학 상담을 해오면 가지말라고 권해요. 내가 유학을 갈 땐 예술 간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독일영화의 장단점을 익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알릴 생각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영화 제작 여건이 수준급이잖아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같고 제작비,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요. 6mm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제작 여건을 갖춘 소수만이 영화를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작업을 하든, 전문적으로 영화를 찍든 ‘영화라는 언어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니까요.

하 = 예전에는 정치성을 띄는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가 권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런지 상업적인 영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감독님 작품은 정치성, 사회성을 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예전 자리였던 교수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나요?

황 = 교수를 하기 전부터 ‘한국의 대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화 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교수로 생활하다보니 대학이 비민주적인 틀을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팔등신으로 고치라급소?’는 동료 교수의 이야기가 골자예요. 학교로부터 작품을 요청받은 미대 교수는 자기의 작품 세계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었고 이 사회는 그것을 팔등신으로 고치라고 요구했지요. 교수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강조하며 그것을 거부했고 재임용에서 탈락했어요. 아직까지 1년이 넘게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1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하게 되었지요.

이 = 어떻게 어렵게 맡은 교수라는 자리를 포기할 수 있으셨나요?

황 = 우리나라의 병폐 삼형제는 언론, 사학, 재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천전투’에서 큰 형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번엔 둘째 형이 주인공이지요. 아버지(독재정권)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를 닮은 깨끗한 삼형제. 공범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수직을 포기했고 이제 영화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 = 무거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영화화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 =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었으면 영화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었다면 당시엔 왕의 말이 곧 여론이었을거예요. 대중간의 소통, 대화를 만든 것이 소크라테스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은 사회·정치적인 이야기거리를 공론화시키는 작은 소크라테스가 되어야하죠. 영화는 사회와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영화관념이에요. 요즘 의식 없이 영화를 만드는 ‘장애 영화인’이 늘었어요. 여기서 의식이란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작가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영화라도 의식이 담겨있어야 독립영화, 예술영화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화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겠네요.



이대규 (신병2)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 영화로 완성할 거예요. 여건이 된다면 극장 몇 군데에라도 걸어서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하 = 프락치라 하면 학교에서 정치 수배자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프락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 = 맞아요. 대학교 안팎에서 활동하는 프락치를 그린 영화예요. 특이한 점은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를 찍는 프락치라는 점이지요. 실제로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을 우연히 독일에서 만나게 되어 이를 영화화하게 됐어요.

이 = 감독님은 우리 영화계에서 디지털 영화의 가능성에 무척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영화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지요.

황 =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은 영화라면 6mm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다더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대중을 상대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하는 매체이므로 그 주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녀간의 애정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단지 관객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 말아야 할 거예요. 21세기는 영화가 문자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만날 때에는 서로의 영화로 대화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영화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황 철 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 독립영화 협회 이사장
- 전 세종대 영화과 교수
- 대표작 1996 *Fuck Hamlet*
2000 *그녀의 핸드폰*
2001 *육천전투*
2003 *팔등신으로 고치라급소?*

지난 2001년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유명 감독들의 영화를 제치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가 있다. 충북 옥천지역의 안티 조선일보 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육천전투’가 그것이다. 당시 세종대 영화과 교수였던 황철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화제가 됐던 ‘육천전투’는 영화를 통한 시민운동의 사례로 대표됐다. 그런데 황철민 감독이 교수직을 내던지고 전업 영화감독을 선언했다. 그렇기에 지난 30일 시작된 ‘인디포럼 2003’ 장편다큐 부문에 출품한 ‘무기로 쓰기 위해 만든’ 영화 ‘팔등신으로 고치라급소?’는 그의 영화 인생의 새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본교 영화동아리 디담들에서 활동중인 하인혜(가교3) 양과 이대규(신병2) 군이 함께 황철민 감독을 만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하인혜 (가교3)

하인혜(이하 하) = 일년에 한 편씩 16mm 영화를 찍는데 영화과 학생들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자제 등 제작환경이 갖추어 있지 않다보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히 힘들지요. 감독님께서 처음 영화를 시작하셨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

황철민(이하 황) = 전 79학번인데 각 대학교 학생들이 연합해 만든 영화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어요. 비디오가 막 나왔을 시절이니까 제작환경의 열악함은 상당했지요. 영화 제작은 주로 8mm 필름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영화라는 장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들도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유학이에요.

이대규(이하 이) = 그런 요즘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한지로 문화상품 만들기”

박 일

예원대 문화상품디자인1·한지공예가



오늘은 한지 공예 수업이 있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고 한지공예 수업을 들으러 간다. 한지를 이용해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이다. 전주 종이문화축제 때 우리들의 작품을 상품화시켜 판매도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무대에 서기 위해 모두들 준비에 여념이 없다. 친구들과 노래도 듣고 수다도 떨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얼핏 문을 보니 공모전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전국 한지공예 공모전’ 나는 공모전 포스터를 보다가 아직은 기간이 있다고 판단 돼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교수님께 말씀 드렸더니 ‘대찬성’ 하신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출품해 보면 수상에 상관없이 좋은 경험이 될거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막상 작품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려니 머리가 텅 빈 것 같다.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 한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상품이 무엇일까’ 고민! 고민! 또 고민 끝에 한지를 이용한 장식점심 겸 쟁반을 만들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작업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아직 한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생소하고 꼭 공모전에 작품을 내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 생각처럼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다. 처음은 초매지로 붙이고 또다시 두껍, 세겘 붙이고 풀이 마를 때까지 하루 이를 기다리다가 색깔도 입히고 문양도 집어넣고 작품성을 살리기 위해 왁스도 사용하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본다.

드디어 공모전 마감 날!

작품을 전시장으로 옮겨 접수하고, 진열하고 멀리서 작품을 본 순간 나는 감동하였다. 당선작 발표 날에는 전시장에 내 작품보다 우수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떨었다. 그런데 내 작품이 입선이었다. 아쉽게도 입선이지만 자랑스럽다. 상장을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라 앉지 않는 경쟁심이 타올라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한다.

지금도 나는 머릿 속에 작품 아이디어스캐치를 하고 있다.

문화단신

본교 겸임교수 김강태 시인 별세



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김강태 시인이 숙환으로 지난달 28일 작고했다. 1978년 ‘한국문학’ 사부문 당선으로 등단한 고 김강태 시인은 본교 문리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등뼈를 위한 변명’, ‘비밀번호’, ‘숨은꽃’, ‘혼자 흔들리는 그네’ 등 다수이며 지난해까지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또한 한국문화도서관 대표이사로 활동했으며 제7차 문학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동국문화인 상을 수상했다.

한편 영결식은 지난달 30일 진행됐으며, 강원도 문막 충효공원 묘지에 안치됐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 진료안내



- **진료과목:**
내과, 신경정신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부인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 **한·양방 종합검진**
- 한방·양방 협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체질분류를 통하여 체질과 증상에 알맞은 건강관리방법을 지도하여 드립니다.
- **전화번호**
- 대표전화 : (02) 3416-9700 (교한 114)
- 접수/수납 : (02) 3416-9725~7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7호선 학동역 7번출구

2003학년도 1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1. 성적공시 및 정정 기한 :
2003. 6. 19(목) ~ 27(금), 17시까지
2. 성적 공시 : 6. 19(목) ~
※ 6. 16(월)~18(수)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처리 후 바로 공시됨.
3. 성적 정정 :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강사 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4. 성적표 및 E-mail 성적 발송 : 7. 7(월)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주소록을 6월 30일까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함.)

교 무 처

대학생 산사 수련회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마음을 보는 자 세상의 주인이다”
풍경소리와 시원한 물소리가 있는 산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기 간 : 불기 2547년 6월 23일(월) ~ 25일(수)
2.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
3. 인 원 : 80여명(신청순 접수)
4. 참가회비 : 이만오천원(25,000원)
5. 접 수 : 석림회 지도 법사님
6. 문 의 : 011-9506-7895, 011-675-6513
http://cafe.daum.net/Sukrim
7. 계좌번호 : (우체국) 012328-02-074799
8. 출발일시 및 장소 : 6월 23일(월) 오전 8:30
동국대학교
9. 주 최 : 동국대학교 석림회 법사단, 한양대, 건국대, 외국어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서울대 치대, 홍익대, 동북대, 녹불회,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서울지역 불교동아리 등
10.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교육원, 동국대학교, 능인선원, 한마음 선원, 석왕사, 흥법사

동국대학교 석림회 법사단

매체비평

영화 편

불링 포 콜럼바인

“미국 향한 통쾌한 독설 의미있는 논리 비약 돋보여”



미국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퍼부은 영화 '불링 포 콜럼바인'.

마이클 무어의 '불링 포 콜럼바인' (2002)은 1999년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종착점은 총기사

고를 구조화된 모순으로 집적시켜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야만적 폭력에 도달한다.

이웃나라 캐나다와 비슷한 수의 총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총기사고는 거의 10배에 달하며 인종차별과 국가적 폭력의 독점으로도 모자라 세계적 규모의 공포를 미국민의 무의식적 기저에 심어두는 나라 미국의 참모습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밤늦은 시간에 콜럼바인 고교 앞길을 지나가는 미사일 운반트럭의 모습에서, 그들의 부모가 대부분 록히드 마틴이라는 무기 생산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에서 콜럼바인의 '트랜치 파피야'라 이를 붙여진 아이들의 일상에 거대한 규모로 실제화된 폭력의 현현이 어떻게 무의식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미릴린 맨슨과의 인터뷰는 특히 의미심장한데 그는 사람들이(특히 보수파들) 자신이 콜럼바인의 비극과 관련된 것처럼 연상하는 것은 순전히 희생양을 찾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며 정작 미국 자체가 공포에 의해 유지되는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덧붙여 자기가 콜럼바인의 아이들에게 해줄 말은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콜럼바인의 비극이 있던 날 아침 미국의 대통령은 세르비아에 대규모의 폭격을 지시했으며 그것은 방습으로 전 미국에 전해졌다.

마이클 무어는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여 지난 시기 전 세계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는 역사를 반복해

왔음을 기록사진들과 내레이션을 통해 웅변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위 시민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총기를 일삼아 깊숙이 배치해두고 있는가를 증언한다. 1800년대 초 콜트가 개발한 총으로 서부의 인디언을, 아프리카의 흑인을, 남미와 아시아의 합법적 정부를 시민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굴복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바로 그러한 폭력에 토대를 둔 국가이며 실은 매우 황폐화된 내면세계를 가진 야만적인 나라인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카메라는 매우 빠른 몽타주로 이러한 논리들을 연결시켜내며 때론 희화화시키고 때론 의미심장한 논리의 비약을 통해 전체주의 국가 미

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해낸다. 그 가운데 무어가 '벤허'의 검투사 찰턴 헤스턴과의 인터뷰 후 총기사고로 숨진 소녀의 사진을 고이 놓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극영화와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콜럼바인의 사고에서 부상당한 아이들과 함께 월마트에서 총알판매를 금지시키는 장면에서는 비록 과잉된 것이기는 하나 카메라의 힘을 통한 실천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 지켜볼 수 있다. 그의 카메라가 비록 너무 주관적이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며 스토커를 연상시키는 집요한 인터뷰로 점철되어 있지만 기실 반대편에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 비하면 그는 매우 선량하다.

박부식 영화평론가

여론의 소통구 대자보여 부활하라

내가 대자보를 쓴다면

다시 외치는 평화

효순이, 미선이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어때합니까. 그 당시에만 반쪽 그들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잊혀져 있습니다. 거대하게 응집되었던 평화의 촛불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우리의 대통령 또한 미국에게 굴욕적인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또 한번 실망시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들부터라도 힘을 모아 월드컵 때 보여주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때입니다. 오는 6월 13일날 열리는 6·13 추모대회에 참여해 평화로 그들의 무자비했던 무력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박진화(경명대1)

2%는 부족해(?)

그동안의 등록금 투쟁 결과로 얼마 전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10%의 인상폭에서 2%의 환불. 그것도 등록금을 낸 후, 3, 4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환불 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부족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보면 나중에 환불 해준다 해도 환불해주시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순수하게 등록금을 환불해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상한 등록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등록금 인상과 그에 대한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에 환불을 바라기 전에 아예 등록금 납부 거부 형식의 운동을 전개하여 좀 더 강력한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체영(경명2)

최근 고려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라'는 대자보를 붙였지만, 곧바로 철거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 운동을 주도한 몇몇 학생들이 학생처에 항의하자 학생처 직원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철거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전해듣고는 이제 대학가에선 대자보가 단순한 '광고' 차원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사실에 씁쓸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민중의 눈과 귀

예전 5공화국 시절, 서울퍼런 전투환 정권때만 해도 대자보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매체였다. 그리고 그 시절 대자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써야 했고, 밤새워 쓴 대자보는 어수룩한 새벽녘 대학가 곳곳에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불여지곤 바로 떨어지는 줄다리기 속에서 '진실'을 전파하고 '저항'의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다.

사실 '대자보'는 언론매체를 소유하지 못한 민중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던 지극히 민중적인 언론훈이었다. 여기에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기증언론에 '보도지침'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통제할 경우, 대자보는 민중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사발문언이 되어 정보의 공유를 이루어주게 하는 유일한 매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때 대자보 앞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운집해서 그 내용에 대해 즉석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를 때어내려는 학교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외중에 종이신문의 기자와 형사들이 나란히 읽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80년대에 대자보가 유행(?)했던 것

은 그만큼 점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의 강도가 더해진 것에도 기인하지만 이는 거꾸로 사회 전반에서, 특히 기층민중과 지식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에 비례하기도 한다.

정권의 비리와 전횡이 많아질수록 대자보의 질과 양도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대자보가 대학가의 점유율이 라 불리게 된 것은 학생운동이 사회변혁의 동력이 된 것에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대자보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의 입문서 역할도 특특히 해냈다. 보도통제와 검서 목록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했던 대학생들에게 대자보는 그 자체로 훌륭한 텍스트였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명망가들에 의한 집회와 성명서, 그리고 밤새 등사기로 밀어 인쇄상태가 선명치 않은 유인물이 고작이었다. 오죽하면 시인 김지하는 남 몰래 타는 목마름으로 '민중주의'에 '만세'를 쓴다고 하지 않겠나. 대자보는 바로 대중을 개인의 공간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힘으로 6월항쟁을 이루어 낸 것이다.

'공지문'으로 전락

그러나 격렬한 80년대가 가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회주의의 몰락,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쓴 90년대 이후 대자보는 더 이상 학생들의 대변자가 아니었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종 취업안내, 토폴이나 토익강좌 광고가 대신했다. 그 대신 대자보는 노동의 현상이나 시민단체의 행사에서나 볼 수 있었고, 대학가의 대자보는 학생회나 동아리에서의 '공지'의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의 대자보

는 필요가 없는가? 물론 아니다. 대자보가 알고자 했던 내용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온 것이지만 대자보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다.

온라인 통해 부활

90년대 후반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에 일대 혁명이 온다.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과 PDA로 무장한 신세대에게 대자보는 더 이상 유효한 매체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채팅과 메신저로 전달하면 그만이다.

어찌보면 인터넷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된 것에 지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로 수십만명을 광화문에 모은 '촛불시위'로 보지 않았나?

소통방식의 변화에 맞춰 이제는 대자보의 내용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 더 이상 대자보에 '타는 목마름' 같은 비장미의 글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이 공유하고 소통되는 내용이 아닌 공동체 전반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면 대자보는 어떤 방식이든 그 독자성으로 인해 환영받을 것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따라 의제도 함께 변하는 시대가 왔다. 공동체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하면, 대자보는 항상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커다란 종이에 차트글씨로 전달되던 인터넷 메신저로 전파되던, 대자보는 우리가 함께 풀어갈 문제를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때 문이다.

이창은 웹진 대자보 발행인

'밤손님'들이 이제 그만

학생회관 이용하는 학생들! 자신이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를 담기는 하지만 간혹 이 경비아저씨를 곤란하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규정상 학생회관의 문은 12시에 닫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이 밖에서 술에 취해 학생회관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 할 때면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게다가 밤, 여학생 들만이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 시간에 들어오겠다고 하며 항의할 때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부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 최대한 학생회관의 문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일에 종사하고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에 좀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옥천(학생회관 경비원)

다시 한번 대-한국

작년 이맘때엔 월드컵 개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오직 한국 대표팀의 첫 승만을 바랐는데 그것을 '가지! 히토시 마로'라는 품으로 바꿔줘 한, 세계가 기적이라고 인정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팀의 기적을 일궈낸 것이 모든 국민이 하나된 응원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서 정연한 응원문화에 전 세계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놀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된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2년 6월, 붉은 가슴의 뜨거운 열정을 아낌없이 남긴 채,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는 지난 IMF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한국!'을 외치며 하나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민희(사과대1)



메아리

변덕쟁이

▲“애가 한 입으로 두말하네. 아까는 내 말에 동의했잖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니 말이 틀린 것 같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변덕'이. 그에게 문제의 본질은 관심 밖의 일이다. 단지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말 바꾸기'와 '변덕'만 부릴 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윤덕홍 교육부 총리는 "NEIS 강행" 의지를 접어두고, NEIS 체계 27개 영역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한 △교부 △학사 △보건 △진·입학 등을 다른 3개 영역에 대해서 시행 자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해, 그동안 교육과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NEIS 시행을 반대해왔던 이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였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줄 알았던 NEIS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어야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본말이 전도된 전 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교총,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이제는 입을 모아 "NEIS시행 촉

구" "전교조 손 들어준 교육부총리 퇴진"을 주장, '변심'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29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재검토해보면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시행"한다고 또다시 입장을 뒤흔었다. ▲교총, 조선일보,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까지, 교육과 인권이라는 문제의 핵심

은 도외시 한 채 소모적인 힘 겨루기 싸움만 벌이고 있는 셈이다. NEIS 시행 문제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인권의 문제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알고 봤더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또다른 친구, '변덕'이는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였다. 한보라 편집장 hviolet@dongguk.edu